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45> (修習止觀坐禪法要)

제6장 정수행(正修行) ⑨

만법은 마음 움직이는 모습대로 나타나

一行者 若於行時 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 欲行 爲煩惱所使 及不善無記事行 即不應行...

여기서부터는 행 주 좌 와 등 열 두 가지 일 가운데서 차례로 낱낱이 지관수행을 하는 모습에 대해 해석하였다.

만일 길을 가야겠다는 일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시 길을 떠나는 일도 없고 가야 할 길도 없다.

"나는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머물러고 하는가." 머물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만 한다.

첫 번째로 길을 가려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을 해야만 한다. 번뇌의 지배를 받아 선하지 못한 일, 무기의 일 때문에 길을 간다면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한다.

길을 떠나려할 때는 출발하기 전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만 한다. 이번에 길을 떠나는 것이 번뇌의 지배를 받아 살생, 도적질, 음행, 망어 등 선하지 못한 일이나 무기의 일 때문이라면 즉시 중지해야만 한다.

일체법은 마음으로 귀결하기 때문에 일체 만법은 내 마음으로 귀결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또한 마음은 본래 일어남이 없는데, 대상경계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만법은 오직 내 행동하는 모습일 뿐이다.

안주할 때엔 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안주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체 번뇌와 선악법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머무는 마음과 머무는 가운데 일체법은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옛 스님들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삼매 닦아 행주좌와 모두에서 지관수행 떠나지 말아야

그러면 길을 가는 도중에 지 수행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일체 번뇌와 선법·악법 등이 일어난다는 것과, 길을 가는 마음과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체 모든 법은 실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명료하게 안다면 망념의 마음이 쉬게 된다.

등 선한 이익을 여법하게 하려고 길을 떠날 경우엔 즉시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악업은 짓지 말고 못 선업을 받들어 행하는 일이라든지 즉시 길을 떠나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의 모습도 없고 행동할 대상도 없다. 주체와 대상은 본래 고요하다. 이를 안다면 지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 수행이 이와 같다면 관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는 안주하는 가운데 지관을 두는 것에 대해 말했다. 안주라고 하는 것은 정지하여 머문다는 뜻이다. 마음을 따라서 몸이 안주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몸을 머물게 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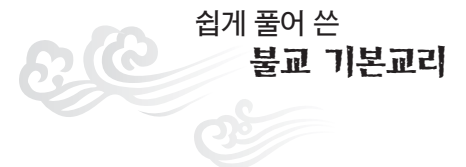
또 길을 가는 도중에 관 수행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몸은 마음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로 인해 길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마음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길을 가는 도중에 지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말해보겠다. 내가 길을 떠나는 일 때문에 현재 일체 선악법이 일어난다는 것과, 길을 떠나지 않는다면 길을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알아야만 한다. 이것을 두고 "만법은 오직 행하는데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二住者 若於住時 應作是念 我今爲何等事 欲住 若爲諸煩惱及不善無記事住 即不應住 若爲善利益事 即應住 云何住中修止 若於住時 即知因於住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了知住心 及住中一切法皆不可得 則妄念心息 是名修止 云何住中修觀 應作是念 由心駐身故名爲住 因此住故 則有一切煩惱善惡等法 則當反觀住心 不見相貌 當知住者 及住中一切法 畢竟空寂 是名修觀

만일 마음을 안주하지 않으면 몸도 역시 안주하지 않는다. 모든 법이 끝내 공적하다고 하였는데, 머무는 마음과 머무는 대상으로서의 법이 낱낱이 당체가 본래 고요하여 진공의 이치와 서로 호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끝내 공적하다고 하였다.

중상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삼성(三性)

(4) 의타기와 원성실성의 상호관계

'유식론'에선 의타기와 원성실성을 따로 분류하였으나, 이 두 성질은 서로 분리되거나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만일 이 두 가지 성질이 상즉관계라면 진여는 의타기를 의지해서 현상세계로 발현하기 때문에 응당 의타기를 따라서 생멸해야만 합니다.

가령 '상즉'과는 반대로 두 성질이 완전히 분리된다면 진여는 의타의 자체성질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성질은 상호분리관계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 두 성질은 다르지 않지만 다르지 않지도 않다고 합니다. 비이비불이(非異非不異).

이 두 성질이 단정코 다르다면 진여는 의타법의 실성(實性)이 될 수 없으며, 이와는 반대로 다르지 않다면 진여가 의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여 역시 의타의 생멸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타기성인 일체의 법상(法相)과 원성실성인 법성(法性), 이 두 성질이 부즉불리(不即不離)하고 불일불이(不一不二)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현묘의 극치를 추궁한 중도의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5) 진속이제(眞俗二諦)

이를 다시 진속이제(眞俗二諦)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공종(空宗)에서는 그 모든 사상적 핵심을 진속이제를 바탕으로 해서 근본종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종(唯識宗)에서는 삼성(三性)을 그 근본종지로 삼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만유는 인연환유(因緣幻有)라고 합니다. 인연환유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의타기성입니다.

'타허'를 '인연'으로 풀이하는 이유는 있다 해도 인연이라는 상호관계성으로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있다 해도 그 실체가 따로 독존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인연관계성인 의타기성은 있다 해도 허깨비 같은 존재, 즉 속제환유(俗諦幻有)이며, 환유는 바로 진제즉공(眞諦即空)인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이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니다

- http://www.esaju84.co.kr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 완성 (국내의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증은 특혜 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헤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